

연 중 제 20 주 일

기도서 P. 417 C해

1독(예 레 38장 4~6, 8~10절)
2독(히 브리 12장 54절)
복음(루 가 12장 49~53절)

숲 정 이

발행인	법	식	규
인쇄인	정	승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 서서노송동 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강 론□



울으시는 성모님

김 준 호 신부

언젠가 일본 아카다의 목자 성모상에서 순수한 인간의 눈물이 흘러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성모님이 울으신 것입니다. 그 목자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처럼 뺨을 타고 가슴팍으로 하염없이 흘러 내리며 소리도 없이 울으셨던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왜 울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물이 메마른 세상—다시 말하면 우리가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이하로 추락되고, 어떠한 비참한 현상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모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 즉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생활을 보시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생활을 보시고 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회가 너무도 불행하기 때문에 어머니로써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을 느끼시고 우신 것입니다.

눈물의 성모님은 그 말없는 눈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최상의 실득은 응변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괴로워 하시는 눈물인 것입니다. 어느 불효한 자식인들 어머니의 말없는 눈물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메마른 세상이기애 어머니의 크신 사랑과 애절한 심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회개와 열성적인 신심과 이웃의 비참에 대한 뜨거운 눈물의 동정이 있어야 한다고 타이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에 의한 말없는 성모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치 못한 생활 상태로 더욱 성모님을 슬프게 해드려야 할지, 아니면 다시는 성모님께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할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발전을 향한 새로운 발돋움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어두운 면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니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셨던 성모님의 생애의 모습을 우리의 실생활로써 이 사회에 보여 주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모 승천과 광복의 기쁨—이 두 가지 기쁨을 맞이한 우리에게서 역시 두 가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성모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합니다.

(둔울동 전주교회 보좌신부)



값이

대폭 내렸읍니다

지난 7월 소위 부가가치세 실시 이후 우리나라의 신문이나 방송, 텔레비전 등에서 볼 수 있는 회한한 광고 제목이다. <값이 내렸읍니다>, <값이 대폭 내렸읍니다>—이 얼마나 시원한 말들인가? 급변 여름 삼복 더위는 이 한 마디 만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가끔 볼 수 있는 <몽땅 땀이—소위 바진 세일>과는 다르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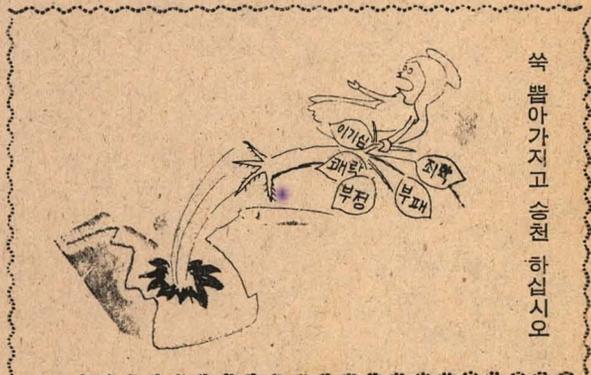
그런데 불행히도 문제는 터지고 말았다. 값이 대폭 내린 그 상품이 품귀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여름철에 꼭 필요로 하는 선풍기, 냉장고 등의 값이 대폭 내렸다는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충분히 자극할만한 요건이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런데도 품귀현상을 빚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소비가 많아서 미처 공급을 제대로 못한 탓인가? 아니면, 정부 당국이 고시가격을 정해 주면서 적절한 시기에 가격을 재조정 해주겠다는 언질 탓인가? 당국이 부가가치세를 실시하겠다고 했을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했었다. 그러나 당국은 전문가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나타낸 우려의 뜻에 약속을 했었다. —'물가는 걱정하지 말라.' 또 반사회 등을 통한 계몽교육에서는 이런 말도 있었다.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1개월 반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실제 물가는 10%씩 오른 결과를 빚었다. 어떤 영수증에는 평상시의 정가애다가 부가가치세금 10%를 포함해서 명기하고 있다.

해방후 기록적인 성장을 가져온 당국에의 기대와 실망이 엇갈림은 아파트 투기에서도 느낄 수 있다. 공사발주를 못하는 서민주택과 아파트 투기 부음—왜 그리됐나? 어떤 <조치>라도?

값이 대폭 내린것은 「사람」 뿐인가?

숲 정 이 산책





언제나 오시렵니까

—문 바르톨로메오 신부님께

李 承 憲



꺼지지 않는
그리움을 사르다가
차라리 무너진 가슴 찡하니
기억의 열편을 들추면
당신이 없는
이 부재(不在)의 현실에서
밀는 이와
밀지 않는 이의
차이뿐인데,
도리어 슬퍼지기만 합니까?

하늘나라 사명으로
이승을 찾아 온
저승의 외로운 용병(勇兵).
한 거덜난 역사의 광장을 지키다가
비대(肥大)한 ○○의 덮에 걸려
정의와 자유의 박제(剝製)가 된 당신.

그래도 우리를 찾아
<월요 가도회>에 돌아오겠지.

두 손 모아 합장(合掌)하면
생시처럼
선뜻 문 열고
웃으며 들어서는 당신의 모습.

(필자: 시인, 前 월간 약진전북 문예부장)

※ 편집자 주

오는 8월 24일은

문 정현(바르톨로메오)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티모테오 전서

유 중 환

티모테오 전서는 티모테오 후서와 티토서와 더불어 사목 서간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이 세 서간이 언어와 내용에 있어서 서로 비슷하고, 그 수신인들마저 지방 교회의 주교들이며, 저자가 그들에게 사목적 직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 세 서간을 집필했기 때문이다.

저자와 수신인: 티모테오 전서의 저자와 수신인이 누구인지, 성서 주석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여러 성서 주석학자들은 이 서간의 어떤 부분은 바울로의 친작이라고 보며, 이 바울로의 친작 부분을 기초로 해서, 바울로가 사망한 후 바울로 사도의 후계자인 어떤 주교가 바울로의 이름을 빌려, 지방 주교인 티모테오에게 보낸 편지라는 가설을 내세우고 있다.

집필 장소와 연대: 집필 장소는 티모테오 후서 1, 17에 로마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활동의 중심지였던 로마였으리라고 추측한다. 연대는 사목 서간들에서 주교와 장로를 구별하지 않는 점(티토1,5,7)으로 봐 1세기에 저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117년경에 순교한 안티오키아 주교 이냐시오는 주교를 장로들과 부제들로부터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스미르나에 보낸 편지(8, 1.) 여기에서는 사목 서간들에 비해서 교회제도가 뚜렷하게 발전을 했으니, 사목 서간들은 그 이전에 즉 1세기에 저술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집필 동기: 바울로의 이름을 빌린 익명의 저자가 에페소 주교인 티모테오에게 그의 직무 수행에 관한 지침을 주고자 집필했다.

내용과 신학: 이 서간에서는 수신자인 주교를 권하여 이설들을 거슬러, 전승된 신앙을 잘 보존하도록 하였으며(1,3-10,18-20, 4,11), 성부를 합당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주교나 장로 또는 부제들을 임명하는데 신중히 고려하도록 한다(3,1-13, 5,17-25).

영지주의에서는 2원론에 입각해서 세상을 악으로 규정 배척한 결과 결혼 생활을 최대한 기피하라고 했다(1티모 4,23). 티모테오 전서에서는 2원론을 반대해서 결혼 생활을 보호할뿐 아니라(1티모 5,14), 영지주의 위설(僞說)을 반박한 후 결혼 생활은 하느님이 설정하신 좋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영지주의와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신앙 규범과 신앙 개조도 역시 더욱 뚜렷하게 명시되었고 성직 역시 강화되었다.

이 서간은 마태 18장 및 디다케와 함께 교회 초창기에 교회제도를 연구하는데 제일 오래된 중요 문헌이고, 그 다음 세대의 교회제도 설정 및 교회법 제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서간이 바울로의 사상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서간의 저자는 바울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바울로의 사상을 기초로 새로운 시대 환경에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 신앙인의 영혼 양식인 성서·성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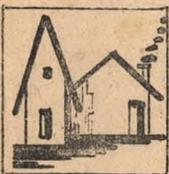
가톨릭 출판사 전북 총판

천사의 집

□전동 성당 구내 (前 대전 신용조합 사무실)

□연락처...전화 2-3 2 2 2

□설계·감리·허가 수속 □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회소식!!!



신원 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연))

☆ 전 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야간> 3-1449

[육중에 계신 함세웅 신부님과 면회]

8월 2일 오전 9시 주교관에서 비서실의 장신부님과 이문동 본당 안신부님과 함께 공주 교도소로 함신부님을 면회하기 위해 출발. 대략 1시간 10분동안 교도관 입회하여 면회가 시작 되었습니다.

함신부님은 약간 여윌었지만 햇빛에 좀 그슬려서 건강해 보이셨고 눈의 충기는 더 또렷했으며 첫인사가 여러분들의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편안히 잘 있어. 몸도 건강하고. 걱정하지 말아. 어깨와 허리가 신경통인지 좀 쭈서긴 하지만 괜찮아... 계속해서 죽을 먹고 있지. 요가도 하고, 30분정도 운동해... 소화를 위해서 죽을 먹으니까 좋은것 같아. <영육에 이상없음>.” 웃으시면서 이같이 근황을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해방신학에 더 깊은 독서를 통해 분석할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또한 모든 생활이 그렇듯이 감옥에 오기 전까지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일단 이런 처지를 당하면 오히려 편하게 생활하게 된다고... “로마에서 귀국후 책도 별로 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책을 볼 수 있어(실제로 그 전날 한 보따리 얇은 서적을 내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압에 의한 휴식이지만 그동안의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고 생각도 많이 할수 있었지...”

그동안 국사공부, 광복 20년사 그 뒷얘기까지 공부할 수 있었고, 근대신학 공부와 성서중에도 바오로 서간과 사도행전을 고고학과 연결해서 공부했다고.....

광주에서 목사님들의 부인들의 성의에 감사 전해주고,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가지로 사서이나, 영치금, 서적 그 자체보다 관심이 그따게 생각되니까 구속된 학생들을 위해서도 꼭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요즈음 매일 밤 또는 책 등을 일일보고를 하고 있다고..... 서대문에서 법원 통근버스 안에서 특히 문익환 목사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분의 성서지식과 사상이 깊다는 것을 느꼈고 인간의 모습에서 하느님의 모습(Imago Dei)을 찾고져 하는 자세와 성삼론 등.....

이젠 정립못했던 해방신학도 정리되고..... 일전에 사망한 김정훈 부제의 소식과 특히 교도소 안에서 사형수들의 집행이라든가 더 큰 불행을 보고 신앙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편집자 註: 김정훈 부제는 故 김홍섭 판사의 자제로 오지리 유학중 선종)

기도생활과 시편을 묵상하며 바빌론 유배생활... 불스토이가 만권의 서적을 독파한 인물로 그의 사상이 교회 사상과 어긋나는 점도 있지만 겸손한 자세라든가 사상의 깊이가 있다고.....

“토스토엠프스키도 반 가톨릭 사상이 전이나 신앙의 진면목을 찾아 볼 수 있다네. 감옥에 오기전 바쁜 생활속에서 별다른 자극이 없었지만 지금은... 가라마조프 형제에서 검사가 법정증거로 살해하지 않은 아버지를 꼼짝없이 살인자로 몰았지만 살인자로 몰린 그로써는 살인죄보다도 육살이를 통해 자신의 다른 잘못과 방탕했던 생활을 뒤우질 수 있다는 하느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네. 지금은 밤 12시까지 잠편없이 독서할 수 있지... 또 팔 굽혀펴기에는 30번정도 하네(정말 놀랐음).”

이때 비서 장신부님이 추기경님의 친서를 전달하며 추기경님의 뜻을 설명 하셨습니다. ...함신부님의 소신이나 주의를 떠나서 순서를 찾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기 바란다라는 장신부님의 말씀... 지금 단계에서 소신을 굽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으나...

주교님의 친서를 봉독하고 함신부는 “추기경님께 내 뜻을 전달해 주게. 아마 내 말을 이해해 주실꺼야. 지금의 내 처지는 어떤 강박에서 옹하고 옹하지 않는 처지가 아니니까 자기측의 합리화를 위한 이런 표시에는 옹할 수 없다고. 이것은 양심에 허락하지 않는 일로써 추기경님의 뜻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으니 열려하시지 말라고 전해 드리게. 인간적 고생을 안하고 나오는 것보다 소신과 신념이 앞서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의미가 문제가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경험한 대상의 체질을 잘 아니까 거부하는 것이지. 추기경님께 감사 전해 드리게. 이 상황안에서 이것은 인간적 기교이고 크리스찬으로는 하느님을 우롱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 또 다른 측면의 사람이 있어... 그 숫자는 소수일지 모르나 그 무리의 소망(expectatio)를 저버릴 수도 없네. 나의 이런 자세가 승리를 뜻하네. 다른 측면에서. 나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런 나의 생각을 확신하고 있네.....”

이렇게 면회는 끝났습니다. 우리들의 말은 대부분 약하고 함신부님의 뜻을 대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건강한 모습과 신념 있는 자세, 그리고 육생활을 통해 더욱 정돈된 사제상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허전하게 발길을 돌렸지만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편집자 註: 위 내용은 서울 장위동 본당(주임신부: 양 흥)에서 발행하는 주보 제393호(77.8.7일자)에서 옮겼습니다.」

요심이 (211) 김병오



◇ 신장개업! ◇

다모아 양복점

황정규 (요세)

이리시 창인동, 익산군청 앞

□ 타자수리, 취업알선, 매월점정 □

뉴-타자학원

원장 신송무(바오로)
전화 ⑥ 6664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포송동 605-1

◎ 사진기계 · 사진재료 도산매 ◎

태광사

(구 태양사)

유영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 주산반 · 부기반 · 경리실무반 □

삼일주산경리학원

(국교부, 중고등부, 일반부)

정진경 (분도)

☎ ② 1462

병무청 ← 구 법원 중간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8월 15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성모님의 특별한 가호가 한국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1. 모든 양심수인(良心囚人)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진정서에 크리스찬 양심으로 서명하자!

- 국제 앰네스티(amnesty) 위원회는 「양심에 충실했기 때문에 수감된 인사의 석방운동, 범죄 심사중의 고문행위, 형집행중의 인간학대 등 현저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시정 촉구 등을 세계적인 범위에서 호소 촉구한다.
- 금년 12월 10일 유우엔 총회에 제출될 진정서에 크리스찬 양심으로 서명하자. (본당 신부님에게 진정서가 있음.)
- 2. 대학생 연합회 제 9차 지역대회 (16일 오전 9시 전통성당 집합, 장소...정읍군 산내면 매죽국교)
- 3. 교리교사 연합회 히기불사 활동 (16-21일)
- 4. 제 4차 여성 꾸르실료~선배 꾸르실리스타 형제 자매들의 빨랑까 (19일까지집수) 기다립니다.
①개회식...18<목>오후6시, ②마나니따...21 (일)오전4시반, ③끄라우슬라...21 (일)오후7시
- 5. 본당 실적파악을 위한 설문지 (교구 평협공문 77-8)...8월20일까지 꼭 회송해주세요.
□방송안내...문화방송(MBC)...매일 밤 11시 25분 「별이 빛나는 밤에」 이종원 신부 방송
...서해방송(SBC)...매일 밤 11시 30분 「사색의 오솔길」 김 태운 신부 방송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진복
3874 보좌 신부 김성석
사도 회장 이복석

- 1. 꾸리아 월례회 : 14일 오후 2시, 강당
- 2.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 주일과 같음
- 3. 부녀회 목사회 : 16일 오후 2시-18일 오후 4시, 가톨릭 센터, 회비(2천원), 대상, 성심 부녀회, 성모회, 어머니 성가대, 기타 원하시는 분
- 4. 밀린 교무금 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어린이와 함께 미사 참례하시는 분은 양편 컵줄 의자에 앉으십시오
- 6. 본당 신부 강조사항
① 미사시간 엄수, ② 성경, 성가집 지참, ③ 신심 단체 가입

□ 지난주 봉헌금 : 112,417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웅용
사도 회장 박승훈

- 1. 신음조할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2. 성모회 정기총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빠짐없이 참석 바람
- 3. 성모 승천 대축일(15일) 미사시간 안내 : 오전 6시, 오전 8시(아동미사), 오전 10시(미사중 어린이 컵 영성체식), 오후 7시 반
- 4. 영화 「마더 데레사 수녀」 「멀고 먼길」 상영 : 16일(화) 오후 8시 반,
- 5. 어린이 미사시간 변경 : 매주<토> 오후 4시, 착오없기 바람
- 6. 학생교실 : 16<화>-19<금>, 오전 9-11시

□ 지난주 봉헌금 : 51,99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 1. 여름 성경학교 1일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 2. 첫 영성체 아동 환영식 : 공식미사 후
- 3. 신축위원회, 사도회, 각 공소 집행위원 : 내일 빠짐없이 참석하여 본당 살림 도와주세요
- 4.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 오전 9시 반
- 5. 대축일 맞아 합동 가정미사 봉헌합니다
- 6. 성가연습·레크레이션 : 매주<금> 오후 8시
- 7. 성당 신축헌금 수입누계 8,957,000원
이재구(1만원), 박성녀(5천원), 서명장(1,500원), 중앙 사랑하오신 모친 P(1만원)

□ 지난주 봉헌금 : 44,185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 1. 성우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후, 이상기(야고버)떡

- 2. 중고생 교리시간 변경 : 매 주일 공식미사 후
- 3. 봉헌금(교무금)을 속히 완납합니다
- 4. 주일학교 특별교리에 수고 주신 일일 교장님들(유요셉, 최요셉, 유마리아, 오혜테나, 김글라라, 송루시아)과 교사님들(이철태, 이제노베파, 한글라라, 노테프사)께 감사 드립니다
- 5. 성모 승천 대축일(15일)미사 : 오전 5시 반, 10시, 오후 8시,
※ 합동 가정미사 봉헌하실 분은 15일 9시까지 시무실에 신청 바람

□ 지난주 봉헌금 : 45,175원

(서화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 1. 선교주일, 미사후에 간부회의
- 2. 성모 승천 대축일(15일)미사는 주일과 같음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 1. 성모 승천 축일미사는 주일과 같음
- 2. 새로 탄생한 형제님들(영세자)께 축하드립니다
- 3. 성모 승천 대축일! 가정마다 감사의 미사에물 봉헌합니다
- 4. 다음주 신자들의 기도 : 이병호, 최윤희(첼마), 정영자(세시리아)

□ 지난주 봉헌금 : 69,19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함철
보좌 신부 김윤석
사도 회장 김유석

- 1. 자모회 (11시), 장우회 (밤9시)
- 2. 설가정회 : <월> 오후 2시
- 3. 셋별 쉼 공개회합 (632차) : 14일 오후 3시
- 4. 파티마 성모상 가정에 모시기를 원하시면...
- 5. 새성당 모금 조장 모임 : 오늘 밤 미사후, 꼭 참석 바람
- 6. 성모 승천 축일 미사 : 주일과 같음
- 7. 축! 영세자 : 환영식-지녀 미사후
- 8. 축! 첫 영성체 어린이

□ 지난주 봉헌금 : 112,870원

※ 새성당 신축기금 : 풍남동-이화성, 전정석 (각1만) 정수산나 (5천), 유순순(2만) / 동 안산동-최정식 (2만), 신데레사 (5천) / 중앙동-김경조, 채수희(각3만) / 교동-윤마리아 (1만), 김분다 (5천) / 서안산동-차첼마 (3천), 익명 (금1.5만) / 남노송동-오안나, 전가말라 (각5천) / 기타-김아네스 (2만), 윤가로지노 (3천), 박루비나, 전벨라벳다 (각1만)

주계 206,000원

누계 29,125,400원